

문 대통령 '尹 징계' 재가... 추미애 법무 사의 표명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 되길... 추미애 장관 결단 높이 평가”
윤석열 2개월 직무 정지... 검찰총장 징계 헌정 사상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조치는 법무부 감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를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진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 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검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검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검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결정이 내려지자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코로나 감염경로 불분명 추가 확진자 잇따라 '방역 비상'

전국 신규 확진자 또 1000명대
광주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은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연일 꾸준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따라갈 수 없는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또다시 1000명 선을 넘었다. <관련기사 3면> 16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이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6명(지역 830-835번)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들 중 830-832번 등 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833번은 전북 532번 접촉자이고, 834번은 광주 830번의 가족, 835번은 광주 789번의 가족이다. 앞서 지난 15일 밤에도 광주 모 교회 교인 확진

자와 밀접촉한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주 810번 접촉자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밤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485명으로 늘었다. 최근 간호사 2명이 확진돼 코호트 격리된 화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과 환자 1명이 확진됐다. 16일 오후 6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없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거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전남(880명)보다 198명 늘어난데다 지난 13일(1030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기록도 재차 경신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남(848명)보다 206명 늘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새 1000명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9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 문화광장에서 열린 '202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서 사·구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 보내질 10kg들이 김장김치 3000상자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옮겨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공식 엠블럼 확정

5·18 민주화운동의 정체성을 담은 공식 시각 상징물이 확정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가위원회 자문, 오월 단체 등 의견 수렴,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된 엠블럼은 옛 전남도청, 5·18 추모탑을 형상화했다. 희망, 대동, 평화를 강조하는 주황, 파랑 색상을 활용했다. 시각 상징물은 앞으로 상표

출원·등록 후 홍보와 마케팅 상품화 등에 쓰인다. 광주시는 그동안 5·18 기념행사 때마다 상징물을 제작해 정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0주년 올해 공식 문양 개발에 나섰다. 지난 10월 설문조사에서는 연상되는 이미지로 희생·투쟁, 색상은 빨강·파랑, 장소는 옛 전남도청·민주 묘지·도청 분수대·민중항쟁탑, 가치는 민주



·평화 등을 선택한 대안이 많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엠블럼이 전 국민에게 홍보돼 오월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4주간 임상실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